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3기

나눔을 그리다

Cambodia 





●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3기 활동보고서

●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처 아산나눔재단 www.asan-nanum.org
디자인 (주)디자인드트로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3기

나눔을 그리다



Cambodia 

CONTENTS

- 008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재단소개
 - 010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소개
 - 012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전체일정
 - 014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국내 준비활동
-

- 020 노력봉사팀
 - 032 교육팀
 - 044 문화팀
 - 056 물류팀
 - 066 사진팀
 - 074 의료봉사 · 어린이 가정방문
-

- 080 문화탐방 및 여행
- 090 단원소개
- 092 나눔우체통
- 094 비포 앤 애프터





미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눈을 안기는 기쁨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눔을 그려나갔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 정주영 선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아산나눔재단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몽준 의원이 중심이 되어
총 6,000억원의 기금으로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구현



글로벌 리더
육성

청년창업 지원

Part 1 아산 기업가 정신 포럼

아산 정주영 선생의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Part 2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유망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자금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해외 진출도 지원하여 실질적 창업 성공을 돕고자 합니다.

Part 3 정주영 엔젤투자자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기업 투자가 주목적인 엔젤투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리더 육성

Part 1 해외인턴 파견

글로벌 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국제기구,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에 인턴을 파견하여 현장실습 및 해외문화체험을 진행하여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art 2 해외봉사단 파견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청년들이 저개발국가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공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Part 3 아산프론티어 사업

아산프론티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해외 탐방주제를 선정하고 탐방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능동적 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적 사고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Part 4 NPO 아카데미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비영리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NPO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발돋움하는 청년을 양성하라

아산나눔재단은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청년 해외봉사단 3기를 선발 후 캄보디아 캄푼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9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한 손에는 도전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온정을 담아 저개발국 현지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이 시대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와 나눔이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거라는 신념으로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장도를 지지합니다. 청년정신의 가치를 내걸고 선발된 청년 해외봉사단원들은 더욱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정성스럽게 준비, 계획하여 파견활동을 하는 현지에서 약 2주 동안 성실히 완수하였습니다. 단원들이 각자의 마음에 품은 패기와 기상을 몸소 실천하는 노력봉사와 현지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문화교류활동,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배우며 깨우쳐 주는 교육봉사 또한 심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봉사도 전개하였습니다. 나눔이 곧 또 다른 가르침임을 자각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사상과 시야는 세계 공민으로서 이미 좀 더 넓은 세계로 향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나눔재단은 청년 해외봉사단의 활동이 계속되어 대한민국의 청년정신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활약을 기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게 총명하게 만들 것이다.
 담담한 마음은 좁은 이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마음이며 관용이다.
 담담한 마음은 도리를 알고 가치를 아는
 마음이다. 그것은 용통자재의 평상심을
 언제나 잃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배우려는
 학구적인 노력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빈 마음이며 조용한 가운데 치열하게
 자기한계에 도전하는 향상심이다.

정주영의 현대정신 중에서



5.21^월
28^일

모집 및 공고(서류접수)

5.30^수

울산의과대학 의예과 면접

6.01^토

울산대학교 일반학과 및
간호학과 면접

6.22^금

오리엔테이션
울산대학교

파견 2일차

8.20^월

돌슬랭 박물관 견학 및
오리엔테이션
깜빡주 반띠미군으로 이동
(4시간 소요)

파견 3일차

8.21^화

파견 4일차

8.22^수

방과후학교 교실 건축(노력봉사) 및 교육봉사

파견 5일차

8.23^목

파견 9일차

8.20^월

파견 10일차

8.21^화

파견 11일차

8.22^수

파견 12일차

8.23^목

노력봉사, 의료봉사 및 어린이가정 방문

시아누크빌 문화탐방



파견 1일차

7.04_수
8.10_금

국내 준비 활동

8.11_수
8.12_목

1차 사전교육
울산주전몽돌편성

8.18_토
8.19_일

2차 사전교육 및 발대식
서울아산병원

8.19_일

출국 및 프놈펜 도착

파견 6일차

8.24_금

파견 7일차

8.25_토

KEP해변 문화탐방

파견 8일차

8.26_일

코리안데이 행사



파견 13일차

8.24_금

프놈펜 시내 문화탐방
→ 한국 귀국

10월 중

해단식 예정

인적자원의 무한가능성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十年之計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즉 물질적인 자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인적자원은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다.

1995. 2.10 현대고등학교 10년사 발간사에서

준비하자 GO!



세계에 희망을! 젊음에 열정을!! 시작을 알리는 작은 떨림

2012년 6월 22일 4시. 우리 팀원들은 울산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하여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생각하며 들뜬 분위기와 아직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강의실을 맴돌았습니다. 단장님과 박지이 선생님의 봉사활동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봉사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는 일련의 큰 틀만 잡혀져 있을 뿐 세부 활동 사항은 각 팀들이 회의를 거쳐 설정해야 했습니다. 이번 3기는 노력봉사팀, 교육팀, 문화팀, 물류팀, 사진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 팀은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팀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현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토의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1박 2일의 집중적인 1차 사전교육 이후, 8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는 최종준비기간이었습니다.





국내 준비 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1차 사전교육장소를 울산 주전몽돌바닷가 근처로 정했는데 결국은 바닷가 구경을 할 겨를도 없이 1박 2일 내내 정신없이 준비만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아침 일찍부터 각 지역에 흩어진 단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발되고 나서 함께한 OT 때 말고는 각 팀끼리는 모여어도, 단원들 전체가 모인 적이 없었기에 1차 사전교육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같이 모이자, 서로가 처음 만난 느낌으로 자기 소개를 이어나갔고,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OT때 첫인상과는 달리 재미있는 친구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팀장, 부팀장 및 각 팀장의 주도하에 지금까지 팀별로 나눠서 진행했던 준비상황에 대해 전체 단원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속한 팀의 내용만 알고 있었던 터라 단원들에게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진행상황보고를 마치자 각자 또 팀 별로 나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들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날 가장 주된 쟁점은 “벽화그리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팀, 문화팀, 물류팀은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노력봉사팀에서 주관하는 “벽화그리기”는 현지사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에 노력봉사팀원들도 교육팀, 문화팀으로 편입되어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3기

주전에서의 1차 사전교육



준비하자 GO!



세계에 희망을! 젊음에 열정을!! 시작을 알리는 작은 떨림

8월 11~12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주전몽돌해변에서의 1차 사전교육이 끝난 뒤, 우리들은 4 일간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코리안데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6월 말에 처음 만났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출국날이 사전준비를 진행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대망의 출국 하루 전날 우리들은 서울아산병원에서 2차 사전교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같이 모여 서로에 대한 든든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출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저희들에게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전, 앞으로 12박 13일 동안 저희들이 사용하게 될 지급품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봉사하는 청년으로서 출국한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다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교육 시간은 우리 아산나눔재단의 비전, 활동 그리



고 정주영 회장님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2주의 시간 동안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치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 끝나자 저희들의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각 팀의 팀장들이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전체가 모여 피드백을 하다 보니 팀별로 회의할 때 보다 더욱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최종 수정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자의 자세"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해오셨던 조성규 선교사님의 경험에서 우러난 명강이었습니다. 계속된 교육으로 약간 지쳐있던 저희가 끝까지 줄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건 선교사님이 가끔 들려주신 농담과 재미있는 사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재미있게 넘길 만한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기에 처음 들었던 봉사자의 교육을 상기하면서 의미를 저희 나름대로 재정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식사 뒤에 저희들의 건강에 대한 조인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님의 강의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교수님 강의를 바탕으로 한 저희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아자봉 3기는 모두 말라리아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대식 그리고 드디어 출국.



단원들과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빈틈없이 진행된 2차 교육 덕분에 다들 잠을 설치지 않고 폭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발대식이 있는 날이자 출국 당일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발대식이 끝나면 간단한 점심식사가 끝난 뒤 공항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발대식은 저희 팀원과 박지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산나눔재단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나눔사업팀의 박지훈 팀장님의 활동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말부터 준비했던 과정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도 다잡을 수 있었고 강철호 사무총장님의 조언은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선서 시간, 저희들의 팀장, 부팀장님이 대표로 나서서 선서문을 읽었고 각자의 이름 세 글자를 말하면서 책임감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저희들이 코리안데이 마지막 공연으로 준비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며' 발대식이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발대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 또한 있었습니다. 단체복으로 갈아입은 뒤, 함께 서서 정말 한국에서의 마지막 행사라는 생각이 들자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서 멋지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 때까지 준비하느라 정신 없이 달려온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해외봉사단
3기 발대식



청년
해외봉사단
3기 출국



노력봉사팀

차곡차곡 쌓이는 벽돌
하나에 희망 하나...
그렇게 아이들의 꿈도
쌓여갑니다.



★ 과정 및 일정

8/20^{MON}

건축 및 벽화 자재 구입

8/21^{TUE}

건축공간 메우기 /
대나무 골격 시멘트로 메우기

8/22^{WED}

건축공간 평지화 작업 / 대청소



8/23^{THU}

벽화 도안 그리기

8/24^{TRI}

외벽 페인트칠

8/27^{MON}

알파벳벽화 채색하기

8/28^{TUE}

기타 벽화 그리기

8/29^{WED}

벽화 마무리 작업





우리의 작은 손길이
아이들의 무한한 꿈이 되길 바라며



위험한 곡예



궁금증



아산나눔나무



남과 여



노력봉사팀 활동소개

건축무한나눔 육면각체의 비밀



막막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노력 봉사. 현지
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그만큼 준비가 신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
히려 더 많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
했었던 준비와 활동이었습니다. 팀원들 모
두 각자의 도안을 제출하고 이견조율을 거
쳐 선정된 벽화 도안. 엄선한 알파벳 도안은
그리는 방법과 페인트 색상 선택에서, 재료
까지 우리들의 한 땀 한 땀의 손길이 담겨있
어서 더욱 기대되었던 봉사팀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는 다르게 방과후학교 교실이
아직 공사중이라 더욱 더 많은 손길과 시간
이 필요했습니다. 현지 작업자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노력한 결과,
우리의 피부는 점점 까맣게 되었지만, 모두
의 미소와 나눔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건축이 마무리 될때쯤 곧바로 진행된 “벽화

그리기”,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졌기에 매일
계획을 수정하고 끊임없이 논의했습니다. 팀
원들 모두 도안 그리기부터 채색까지 혼신
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먹지로 도안그리기
를 시작으로 하단 부분은 여자단원들이 담
당하고 상단 부분은 책상을 2층으로 쌓아
곡예를 하며 그렸습니다. 이어진 채색작업
은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어 아름답게 마무
리되었습니다. 테두리 작업 또한 말끔하게
진행되어 모두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각자
의 특성과 재능이 살아 숨쉬는 알파벳들은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목표를 위해 단원들이 서로서로 돕고 양보
했고 배려했기에 더욱 값진 가치로 남게 된
우리의 벽화는 **지금도 행복한 추억이 되어
각자의 마음 속에 생생한 불후의 명작 남아
있습니다.**

아자봉 3기가 수놓은 한 여름 밤의 꿈

정일권



20대의 마지막, 대학생활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

개인적으로 특별히 의미있는 시간을 우리 단원들과 캄보디아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합격의 기쁨과 새로운 만남의 설렘으로 첫 만남, 그리고 현지 활동을 상상하며 준비했던 시간. 정말 꿈만 같았던 2주간의 시간 그리고 지금 진한 여운.**

무언가 항상 조금은 부족했던 우리아자봉 3기.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처음의 부족함이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은 활동이 끝난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공간에서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활동에 임했고, 서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맑은 눈과 해맑은 미소를 가진 캄보디아 아이들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었고, 일상생활에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마치 '힐링캠프'의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무엇을 해주기보다 스스로 많이 배워 온다는 단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순간 한국에 온 것 같아 아쉽지만, 이제 각자의 가슴속에 추억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이렇게 끝나지만,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만남으로 더 넓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여름 밤의 추억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아자봉 3기와 함께 꿈을 쌓아간 반띠미 식구들 그리고 아자봉 3기 여러분!



보석보다

값진 구슬땀

김유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하고 힘든 경험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처음 노력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도 높은 작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지치기도 했고, 단순한 일이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폭 찌는 더위에,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땅을 파고, 삽질을 하고, 흙과 돌을 나르고, 움푹 파인 땅을 메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사전교육 때 90% 완공된 건물의 마무리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우리는 벽화 그리기 작업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갔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 날 건축이 진행중인 건물을 둘러보러 갔는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당장 다음날부터 건물을 완공하는 데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준비해 간 벽화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우리는 빨리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밑바탕을 완성하려고 마음이 조금해졌다. 처음에는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흙과 돌을 운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얼굴표정은 굳어가고 서로 아무 말 없이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

와서 생각해보니 그 때 서로 더 격려하면서 분위기를 밝게 해볼 걸 하는 후회도 남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다들 지쳐있었다. 그 와중에도 지친 우리들을 웃게 해준 예피소드가 하나 있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해보자는 제안이 나와서 한 팀원의 휴대폰을 큰 돌 위에 올려두고 작업을 했다. 모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빈의 노래 중에 '아~뜨거뜨거'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노래가 멈춘 것이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화면에 '휴대폰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전원이 꺼져버렸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어쩔 그리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기사부분에서 멈춘 건지 한바탕 다같이 신나게 웃었다.



8월19일 - 밤인데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하고, 습도 높은 날씨는 우리가 캄보디아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환영해주는 현지인이 계셨다. 당시는 누군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 현지 통역을 담당해 주고, 앞으로 13일 동안 도와주실 선교사님이었다. 우리는 다음날 바로 캄보디아의 톨슬렝 박물관에 들러 현지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문화탐방 시간을 마치고 바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될 장소로 향하였다.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안고 **캄푹주 반띠미군**에 도착하였을 때, 수도인 프놈펜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고층 건물은 하나도 없었으며, 손으로 밀면 넘어질 것 같은 집들이** 수도룩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봉사활동 장소인 교회 건물로 향하였다. 밤에는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캄보디아 시골의 전경이 펼쳐졌다. TV에서만 보던 나무로 된 집들과 엄청나게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니 교회에는 몇몇 아이들과 주민이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이렇게 아자봉 3기의 봉사활동은 시작되었다. 교육봉사, 건축봉사, 의료봉사 많은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도착하였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많은 부분이 달라서 현장에서 즉시 수정하고 융통성 있게 계획을 변경하였다. 특히 벽화 그리기 부분에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캄보디아의 뜨거운 여름 우린 봉사활동에 미쳤다.

안지혁



어쨌든(감사해요), 캄보디아!

황성욱

봉사활동 첫날 위치한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 팀을 맞이하는 한마디는 '안녕하세요'라는 작은 소녀의 한국어 인사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리감을 느낄 시간도 없이 우리의 봉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짜인 틀에서 주어진 봉사활동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기획부터 시연, 예산 등 모든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했던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실수도 있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의 수업, 문화공연, 노력봉사 등의 활동을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들던 아이들의 모습, 그들의 삶 등을

보고 저희 팀이 준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라는 특별한 위치가 저에게 더 많은 경험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꽤 괜찮은 팀이었어'**라는 말을 팀원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1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주고 오려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고 왔을까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졌던 특별한 경험들이, 그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생 마지막 여름방학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캄보디아. **어쨌든!**



거칠고 투박했던 벽이
한번, 두번 페인트 칠로 채워집니다.
따뜻함을 담습니다.





나눔을 그리듯,
그렇게 마을에도 벽에도
나눔을 채워갔습니다.





후세에 길이 남을 현판

아슬아슬
위험한 벽화 작업



곡괭이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땀으로 채워진 풍성한 공간

교육팀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스승임을...





★ 과정 및 일정

8/21^{TUE}

유치부

[1교시] 각 학급별로 명찰만들기
진행
[2교시] 알파벳 부채만들기
초등학교 1학년
[1교시] 각 학급별로 명찰만들기
진행
[2교시] 양치질 교육

8/22^{WED}

유치부

[1교시] 양치질 교육
[2교시] 아트풍선만들기
초등학교 1학년
[1교시] 알파벳 부채만들기
[2교시] 인사왕 뽑기
초등학교 2학년
[1교시] 침볼 굴리기
[2교시] 양치질 교육

8/23^{THU}

유치부

[1교시] 제기만들기
[2교시] 주물럭 천연 비누 만들기
초등학교 1학년
[1교시] 제기만들기
[2교시] 주물럭 천연 비누 만들기
초등학교 2학년
[1교시] 연 만들기
[2교시] 연날리기, 제기차기

8/24^{TRI}

유치부

[1교시] 번짐 미술
[2교시] 공기놀이, 투호
초등학교 1학년
[1교시] 공기놀이, 제기차기
[2교시] 번짐 미술
초등학교 2학년
[1교시] 주물럭 천연비누만들기
[2교시] Wash your hand

8/25^{SAT}

유치부

[1교시] Wash your hand
[2교시] 티셔츠 염색하기
초등학교 1학년
[1교시] 티셔츠 염색하기
[2교시] Wash your hand
초등학교 2학년
[1교시] K-POP 댄스 타임
[2교시] 양초만들기





연을 날려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늘만한 꿈을 향해 멀리 날려보았습니다



공놀이



아~ 시원해



집중하는 소년



열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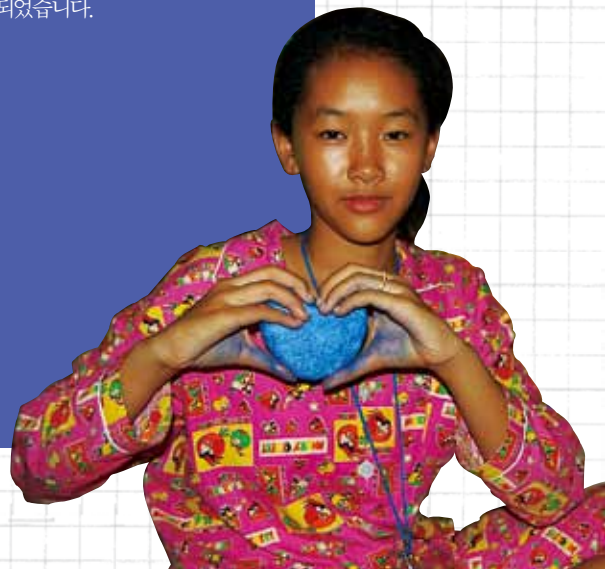
교육팀 활동소개

주물럭 주물럭 비누 만들기로 방울방울 샘솟는 위생교육과 미소



캄보디아 교육 프로그램 주요 교육은 위생 교육이었습니다. 아직 위생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하고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주물럭 비누 만들기'라는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기에 앞서 워크숍 때 비누 만들기 수업을 시연하였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팀원들 앞에서 하는 교육 시연이었지만, 캄보디아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교육에서 미술 수업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비누를 직접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수줍어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러어나~”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eye-contact과 칭찬, 미소를 통해서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참

여하기를 망설이던 현지 친구들도 함께 비누를 만들자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누 만들기가 끝나면 다함께 수돗가로 가서 손씻기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위생의 시작이 되는 손씻기를 비누 만들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크메르어에 서툰 우리를 보고 웃음 짓는 아이들을 보면서 비록 언어가 다를지라도, 미소는 만국의 공통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캄보디아

최현정

꿈만 같은 캄보디아

캄보디아 해외자원봉사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내가 정말 캄보디아를 갔다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일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기에 캄보디아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캄보디아의 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보다

교육팀장을 맡은 저로서는 봉사활동 중 가장 기대가 되었던 것이 단연 교육 봉사였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면서 언어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준비한 교육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것은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다를지라도 같이 그림을 그리고 뛰어 놀면서 서로 교감

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 즐거워하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두 차례의 킬링필드로 인해 인구의 1/3이 죽었다고 합니다. 2차 킬링필드 때는 지식인들을 대량 학살하여 현재까지도 캄보디아에는 지식인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픈 역사로 인해 캄보디아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배움의 부재는 꿈을 부재를 동반합니다.

캄보디아는 높은 문맹률과 예체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공교육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누니 하나되는



캄보디아의 활동을 그리며

김대원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내내 막막하던 마음은 프놈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고서야 누그러졌다. 2012년 8월 19일, 나는 학생 19명 인솔자 1명 총원 20명의 단원으로서, 그리고 4명으로 구성된 교육팀의 일원으로서 생애 첫 캄보디아의 땅을 밟았다. **미지의 나라였던 캄보디아는 무던히도 더웠던 한국에서의 여름보다 시원했고, 무엇보다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덕에 마음은 한껏 더 편안했다.** 도착 당일엔 프놈펜 근처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익일 현지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캄푹 주 반띠미 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날에 느꼈던 편안함도 잠시, 봉사현장에 도착하고서 교회 뒤편 건축물의 공사에 우리의 힘이 필요함을 알고는 팀 전원이 걱정반기대반 당황의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팀의 경우, 교육이 이뤄지는 교실 수가 한 곳이 공사중이어서 교육계획의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난처해하던 우리들과는 달리, 현지의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은 적이 없었다. 나는 첫 며칠간에는 이런 상황들이 그네들 삶이겠거니 하고 체념하고 있었다. 겨우 2주의 시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단지 연민의 감정이 드는 순간만 지나면 그만일 것이라는 것도 바탕에 깔려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조그만 두 손을 모아서,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고개를 숙이기에, 이전과는 다르게 진심어린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가득해졌다.

수학의 연산 중에 '나누기'는 어느 수라도 본연의 수로 다시 나눌 때 1(하나)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그간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나의 작은 재능을 나누기하여, 먼 이국의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함께한 팀원들과 또 소중한 인연을 같이한 멀리 아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후, 기숙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교사님의 간략한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니 캄보디아에 온 것을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다. 사전교육에 들었던 캄보디아 국가에 대한 치안, 위생, 교육, 생활수준, 문화생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캄보디아에서 기대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우리는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돌슬랭 감옥소**에 탐방했다. **고문들의 흔적을 보면서 한 때 식민지였던 한국의 국민으로써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문화탐방 후 우리가 약 일주일간 머물게 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도마뱀, 바퀴벌레, 이름도 모를 다양한 벌레들이 방에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벌레와 같이 머무는 찝찝한 심경으로 밤을 지내고 다음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활동 장소인 반띠미 군에 있는 교회에 내렸을

때, 현지 아이들이 벌써 나와서 기다렸는지 우리를 보며 활짝 웃으며 손을 잡고 먼저 다가와 주어서 고마웠다. 아직 교실에 완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돌과 흙을 나르는 단순노동을 했는데 뜨거운 햇볕 밑에서의 한 시간은 정말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다. 첫 날에는 거부감을 느꼈던 현지음식도 일하고 나서 먹으니 너무 맛있었다. 교육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과 교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동시에 통솔해야 하는 입장이나간 냉정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었다.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그래도 아이들은 크게 실망해 하지 않고 같이 얘기해주면 다시 좋아하고 해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



맘에 새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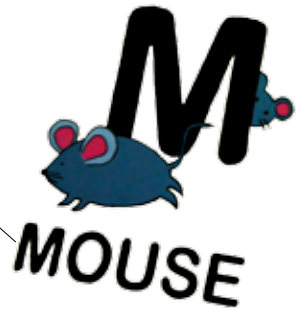
벽화와 캄보디아



박성진

줄어든 짐은 오히려

가득찬 **선물이 되어...**



안태환



사실 출국 전부터 교육팀 프로그램과 가정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당시에는 가서 큰 도움을 주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도움은 준 것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폐만 끼치고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현지에 도착하고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계획했던 수업 숫자보다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2/3로 줄어들고,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하지 않는 등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된 경우가 없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오죽하면 마치는 날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정방문의 경우에도 팀장을 맡았지만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잘 못한 만큼 첫 날 가정방문은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 학생분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될까 걱정이 든 것도 하루이틀, 현지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하고 무리한 계획은 취소하고 좀 더 부족한 계획은 보충해서 매일 저녁마다 모두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준비했던 수업일정이 끝나고 나중에 줄어든 짐을 보고 그 집만큼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가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기 전에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의예과의 특성상 학교에서 1년밖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과 학생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3주동안 울산에서 같이 지내면서 교육시연도 하고 코리안테이 공연도 준비하면서 일반학과 분들과 간호학과 분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의 순수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 반띠미군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마지막날 다과회를 할 때까지 매일같이 오전에 노력봉사를 할 때에도 찾아와서 작은 손이지만 일도 도와주고 교육봉사 할 때 열심히 와서 부족하지만 준비한 수업도 들어주고 매일 꽃도 건네주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2주밖에 있지 못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작게나마 기억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거친 들판을 달려 온 신발들.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그들의 마음을 받는다



함께 했던 시간을 소중히,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알파벳부채 만들기

연날리기 수업



투호던지기



그림 그리기 수업

문화팀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나눔을 통해
분명 같은 피가 흐르는
뜨거운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 과정 및 일정

8/21^{TUE}

[유치부]

- 1교시. 각 학급별로 명찰만들기 진행
- 2교시. 알파벳 부채만들기

[초등학교 1학년]

- 1교시. 각 학급별로 명찰만들기 진행
- 2교시. 양치질 교육

[초등학교 2학년]

- 1교시. 각 학급별로 명찰만들기 진행
- 2교시. 인사왕 뽑기

8/22^{WED}

[유치부]

- 1교시. 양치질 교육
- 2교시. 아트풍선만들기

[초등학교 1학년]

- 1교시. 알파벳 부채만들기
- 2교시. 인사왕 뽑기

[초등학교 2학년]

- 1교시. 짐볼 굴리기
- 2교시. 양치질 교육



8/23^{THU}

[유치부]

- 1교시. 제기만들기
- 2교시. 주물럭 천연 비누 만들기

[초등학교 1학년]

- 1교시. 제기만들기
- 2교시. 주물럭 천연 비누 만들기

[초등학교 2학년]

- 1교시. 연 만들기
- 2교시. 연날리기, 제기차기

8/24^{TRI}

[유치부]

- 1교시. 번짐 미술
- 2교시. 공기놀이, 투호

[초등학교 1학년]

- 1교시. 공기놀이, 제기차기
- 2교시. 번짐 미술

[초등학교 2학년]

- 1교시. 주물럭 천연비누만들기
- 2교시. Wash your hand

8/25^{SAT}

[유치부]

- 1교시. Wash your hand
- 2교시. 티셔츠 염색하기

[초등학교 1학년]

- 1교시. 티셔츠 염색하기
- 2교시. Wash your hand

[초등학교 2학년]

- 1교시. K-POP 댄스 타임
- 2교시. 양초만들기





보여주고 싶은 것이, 뽐내고 싶은 것이 많은 청년들은
더욱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퍼즐 맞추기

환호하는 아이들



너희들을 위한 연주



선물 된 가옥

문화팀 활동소개

엄청난 부담감에 항상 모이고, 회의했던 문화팀



Korean Day 에서의 문화교류를 우리의 활동으로 삼고, 준비하였던 문화팀! 우리 문화팀은 이 글을 열심히 작성 중인 부족한 나를 팀장으로 하여 놀라운 진행실력과 약간의 4차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최성민 단원, 우리의 영원한 춤 선생님 최진미 단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모든지 열심히 하는 김소린 단원, 귀여우면서 다재다능한 춤의 또 다른 다크호스 권예름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 생각보다 순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어떤 내용을 확인차 걸었던 전화에서 들었던 예상 참가인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였던 200여명. 그 때부터 우리팀원들은 멍하니 큰 부담감과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열심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앞의 각종 커피숍을 투어하듯 만나고, 네이트온에서도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그러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팀은 Korean Day에는 체험부스 5개와 파전과 화채를 비롯한 한국음식 나누어 먹

기, 한국의 전통문화공연과 K-POP 댄스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의 밤 행사로 정리되었고, 아이들과 단원들과의 교류 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리도가 없고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 음식만들기는 간단한 화채만 하는 것으로, 체육대회할 공간이 없기도 하고 현지날씨가 우기임을 감안하여 체육대회 계획안은 휴지통으로! 체험부스와 음식만들기는 동시에 진행되어서 각 단원들이 하나씩 참여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문화의 밤 행사에서도 반드시 한 공연은 참가하여 숨겨진 끼를 발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의 밤을 준비하면서 항상 회의만 하고, 봉사에 대해서 토의만 하였던 아자봉 3기 단원들의 유쾌한 모습과 숨겨져 있는 춤에 대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까지 부족한 팀장의 말을 항상 잘 들어주고 열심히 회의에 참여하여준 팀원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자봉 3기 문화팀 최고~>!!!!!!

아이들의 눈망울로 비친 나의 캄보디아



이소리



캄보디아로 향하기 전에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봤었다.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왠지 모를 순수함과 아이들 특유의 미소 짓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기에 새로운 나라로 떠나면서, 또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이것 저것 준비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하였다. 첫날은 저녁 늦게 반딧미 지역으로 도착하여 아이들을 볼 수 없었지만 다음날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을 보자마자 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름아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었다.** 피부색도 우리와 다르고, 사용하는 말도 다른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던 것은 한국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 그들의 눈에서 유독 반짝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도 너무 밝고, 또 자신들에게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고마웠고 앞

으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12박 13일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게 하였다. 아이들의 예쁜 눈웃음과 환영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아이들 사이에는 무언가 모를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하루하루 짐볼 굴리기, 연날리기, 색 뒤집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몸으로 부딪치면서 활동을 같이하고, 오전에는 흙과 돌을 나르는 노력봉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과 힘을 합쳐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보이지 않은 벽이 허물어져 가는 듯 하였다.



감미롭게 날아든

내 마음의 아자봉 3기

권예름

면접 때가 생각이 난다. 바이올린을 들고 가서 연주를 할까? 아니면 개사를 해서 노래와 춤을 보여드릴까? 온갖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나 혼자 너무 설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무 준비 없이 말로만 대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면접 장을 향했다. 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같지만 자신감이 많지 않던 나이에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겠다고 계속 손을 가만두지 못했던 적극적인 나는 드디어 **합격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기뻐다.**

본격적으로 교육시연과 춤, 합창, 합주 연습이 이어졌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도전한 일이기에 힘이 많이 들거라 생각 안 했다. 내가 맡은 교육은 “영어시장놀이”였다. 하지만 장애가 많을 거라 예상되었다. 교육시연 날, 캄보디아 아이들의 영어수준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어교육이 될 것인가 라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그래서 one부터 ten까지 숫자를 가르쳐주자는 의견을 말했고 그것을 노래와 접목시켜 교육해보자란 생각에 숫자송도 검색해보며 노력을 기울였다. 합주와 춤, 합창연습도 틈틈이 시간이 나는데로 더운 날씨 속에서 무사히 진행되었다. 서

울아산병원에서 1박2일의 합숙과 발대식 후, 우리는 캄보디아 행에 몸을 싣었다.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했다. 1주차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오전엔 건축봉사 오후엔 교육봉사를 하였다. 건축현장에 버스가 도착하니 웬걸 내리기 싫어졌다. 하루 전날 뚜르슬랭을 관광하고 나니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계속 여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하지만 내리자마자 반겨주는 아이들, ‘안녕하세요?’라는 환영인사도 해주며 해맑은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보니 그런 안일한 마음이 사라졌다. **“아자!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땀별 아래에서 흠을 나르고 삽질도 하고 돌도 나르고 여자로서 살면서 해보기 힘든 노동을 경험해봤다.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막내가 힘들면 연장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으로 참고 일했다. **일하는 봉사현장은 위험한 자재들로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다 찢어진 옷을 입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심지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자봉 3기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다

2012년 8월 19일 일기

아자봉 3기 단원들과의 어색한 첫 만남. 친목도모 및 회의를 위한 1박 2일간의 1차 사전 MT, 파견 직전 발대식 및 1박 2일간의 2차 사전 MT,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부푼 기대와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봉사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사이 출발일인 8월 19일이 다가왔다. 캄보디아로 몸을 싣는 비행기에서 비로소 12박 13일 간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프놈펜에 도착한 뒤 3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캄푹 주 반띠미군.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였던 프놈펜과는 달리 우리들이 13일 동안 일하며 머물 곳은 그저 평범한 한 마

음에 불과했다. 단원들은 크게 문화팀, 건축팀, 물류팀, 교육팀, 사진팀으로 나뉘었지만 자신이 어느 팀에 속한다고 해서 그 팀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의 활동에도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모든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파견되기 직전까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 하나하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여태껏 계획된 봉사활동만 해오다가 아자봉 3기에서는 어떤 봉사를 해 나갈지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해서 더 뜻깊었던 것 같다.

첫째 주는 오전에는 노력봉사 및 건축봉사, 오후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육봉사를 진행하였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노력봉사 및 건축봉사는 완성되지 않았던 유치원 건물을 만들어야 했다. 팀원들과 업무를 나눠서 몇몇 남자들은 삽질하고, 나머지 남자 및 여자들은 흙을 나르는 작업을 했다.



내 안에 샘솟은

진한 감동에 비취

김소린



약 2주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마치 한여름날밤의 불꽃놀이처럼 빛나는 굉장한 울림을 남겨주었다. 4학년, 취업준비생으로서 의사결정에 많은 생각을 해야 했었다. 하지만 해외봉사를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도착했을 게스트하우스로가는 가로등 불빛이 없는 어두운 도로의 밤에도 환한 빛을 볼수있는 한국땅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는것을 간접적으로 느낄수있는 첫번째 감흥이었다. 그렇게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고 나를 편안한 하루를 보냈었다. 우리는 시골의 한 교회로 향했고 건축봉사, 벽화, 문화의밤등을 준비했고 본격적인 건축봉사가 시작되었다. 열의만 가득찬 뜨거운 땀별 아래 삽질에 익숙하지 못했던 몸을 병들게 만들었다. 적어도 하나이상의 목적을 가지고온 아자봉이고 나보다도 열의에 가득찬 팀원들이었기때문에 아픈모습을 보이기가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웠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고 힘든 모습 하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자봉”을 외쳐준 팀원들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다. 건축봉사가 거의 마감될즈음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많았다. 큰 눈으로 보는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아이들의 그 웃음들은 행복 그 자체였다. 내 어릴때 모습과 크게 차이없는 놀이와 천진난만한 행동들은 지난날의 내모습을 보는것 같았고 그곳에 있는 동안 그 이쁜 눈들에 빠져 있었던것 같다. 때론 아이들의 심한장난에 피멍이들고 상처가 나곤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저 기분좋은 흔적정도가 된것 같다. 우리가 기대하고 걱정하던 작업중 하나는 벽화 작업이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은 마치 그간의 고생을 보답하듯이 말그대로 걸작이 나왔다.모두가 참여하였던 알파벳 A~Z 그리고 측면의 그림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수있었던 기회중 하나였던것 같다.



뜨거운

한 여름 밤의 축제

최성민



나누며 아낌없이

성숙한 나를 돌아보며...

최진미



한마디로 요약하면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나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나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꾸어 놓았다.

첫날, 프놈펜에서 캄포트로 이동했을 때 처음에 그 덥고 사골에 주변에는 온통 논 밖에 없고 모기랑 각종 벌레들이 빅사이즈로 날아다니고 또 **화장실 문만 열면 안녕? 하는 도마뱀들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12일을 버티지?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진짜 내가 12박 13일을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었다. 아침에는 노력봉사로 흙을 옮기고 돌을 옮기고 낮에는 교육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회의를 했다. 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밤새 회의를 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몇 일이 지나자 편안해졌다. 그것은

바로 같이 생활한 동료들과 반띠미 방과후 학교에서 나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던 한 여자아이 때문이었다. 워낙 이런 곳은 처음이었고 내가 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버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이 많이 도와주고 재미있게 해줘서 힘든 봉사도 버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마음이고 몸이고 너무 힘들어도 봉사현장만 가면 나를 반겨주는 여자아이 때문에 나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다.

사실 내 고민만 생각하느라 정신은 딴 데 있었는데도 그 여자아이는 끝까지 나를 챙겨주고 나랑 놀아줬다. **오허려 내가 챙겨주고 놀아줘야 하는데 오허려 내가 챙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었다.**





우린 영원히
너희들의 오빠, 누나로 남을 거야.





아름다운 세상



북적북적



모이 뽀 뽀이



그때 그랬지 정일권과 김영광 단원

물류팀

청년들이 바리바리 가지고
간 짐바구니에 다시
담아오게 된 니눔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0 won

★ 과정 및 일정

8/11^{SAT}

파견물품 구매목록 논의 및 작성

8/12^{MON}

구매목록 가격비교 및 최종점검



8/17^{FRI}

물품꾸리기 최종 완료

8/19^{SUN}
~9/1^{SAT}

물품관리.배분 및 점검

8/13^{TUE}

온라인을 통한 물품구매

8/16^{WED}

물품꾸리기 및 구매물품 점검



물류팀 활동소개

물류팀과 바자회



물류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모든 단원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공용물품을 사전에 조사하여 구매하고, 각 팀에서 사용할 물품목록을 받아 구매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구매는 오프라인 구매보다 저렴하고, 배송도 편리한 온라인 구매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발대식 전날 물류팀원들은 재단에 모여 구매한 물품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점검하고, 안전하게 캄보디아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팀별로, 용도별로 분류하여 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개의 상자를 꾸리고 파견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물류팀과 깊은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인 코리안데이에 치뤄진 바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의류나 신발, 학용품 등의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평소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나눠주기 위해 바자회를 열기로 파견에 오기 전

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원들이 직접 집이나 지인을 통해 바자회 물품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를 통해 물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 사용할 학용품들은 새것으로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하였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저희가 직접 제작한 가짜 돈을 1인당 150원씩 지급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물품마다 가격을 책정하였고, 학용품은 싸게 책정하여 많은 아이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키워주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욕심을 부리는 아이와 학부모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바자회를 즐기고, 구매한 물품을 바로 착용해서 다음날 수업에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기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노고가 따르는 작업이었지만, 힘든 만큼 배운 것이 많은 저희 물류팀의 활동이었습니다.



전천후 슈퍼맨 물류팀장 김영광입니다.

김영광

국내 봉사활동은 꽤 해봤고 이제는 글로벌 이다라 생각하며 막연히 해외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 지원한 아산나눔재단청년 해외 봉사단 3기...**지금 생각해보면, 뽑힌 것도 행운이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아이들을 위해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더욱 더 큰 행운이었다.** 공동물품 구매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 코리안데이, 건축노력봉사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2박 13일 동안 더욱 더 집중하고, 애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수기를 쓰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한 교육활동, 나의 충실력을 유감없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코리안데이,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했던 건축노력봉사, 캄보디아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던 어린이가정방문,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받은 생일 축하 파티 등 등... 정말 하나같이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또한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을 통해 봉사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나는 물류팀장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수도 많았고, 나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캄보디아로 출국하면 물류팀장으로서의 활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물류팀장으로서의 역할이 끊이지 않았다. 준비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체의 물품을 준비하고, 관리하면서 내 자신의 역량이 더 발전된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좋은 팀원들과 함께 보낸 12박 13일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전체팀장인 황성욱 팀장 형의 말 그대로 아주 자신있게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생이 되어 대외활동에 참가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캄보디아 단기봉사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로 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현지개발을 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현지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현지에서 진행되는 코리안 데이, 교육 프로그램들보다 오히려 노력봉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봉사 초반에는 그쪽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지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차질이 생겼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의 처음 생각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연날리기, 짐볼 굴리기 등의 활동 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아이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고 또 친해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에만 그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교육을 끝내고 준비한 코리안 데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중간 휴식시간에 저희가 아이들을 무대에 올려 댄스 타임을 가졌던 순간입니다. 처음 듣는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추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전해 주는 게 최고는 아닌 것 같더군요.

아마 우리가 단기봉사를 하는 대신에 직접 현지에 투자했다면 교회 건물과 벽화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희와 교류하면서 가졌던 추억들을 포함하더라도 그 결과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박 13일의 짧은 줄 알았던 봉사활동이 끝나가는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 단기봉사에 대해 접했던 순간부터 항상 머릿속에 존재했던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꼭 **현지에, 그리고 특정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FOREVER EVER...

캄보디아

김동영

나 자신을 극복한

12박 13일

오재민



모든 것이 감사했던 캄보디아에서의 2주가 바람처럼 지나가고, 벌써부터 봉사 후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캄보디아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려볼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봉사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의 생각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교육봉사와 의료봉사 등 정규일정을 제외하고도 캄보디아의 사정이 어려운 가정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봉사단에 선발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막상 해외봉사를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봉사적인 의도로 옆에서 도움을 주려 한 적도 없는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지만 출국 전주에 본격적인 봉사 준비를 하고 발대식까지 마치고 나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대식 때 사실상 방학 중 2주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올바른 봉사를 행하고 오는 길은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그리 두드러진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정확히 인정하는 자세**라는 말을 듣고 제 생각과 마음가짐을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캄보디아로 출발하니 한결 편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댈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현지에 도착해서 마주한 공항부터 숙소까지 모두 한결같이 어색하고 한국보다 많이 불편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처음 몇 일간은 식당에서 먹는 밥이 생각보다 입맛에 잘 맞는다는 것을 빼고는 불편한 점도 많고 봉사 일정과 계획해온 프로그램이 생각해왔던 대로만은 흘러가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왔던 대로 프로그램이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던 도중 제가 봉사를 떠날 때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피워낸 의지의 캄보디아

조흥신



2012년 8월 19일, 몇 달간의 준비와 사전교육을 마친 후 설렘 반 걱정 반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착 후 공항을 나와 보니 프놈펜은 생각보다 그리 덥지 않았다. 숙소에도 착해 짐을 풀고 짧은 회의를 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잠에 들었다.

활동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 곳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뚝솔랭 박물관** 견학은 **캄보디아의 역사와 그 속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견학 이후 문구류나 벽화를 위한 페인트 등 현지 구입 물품을 구입하고 프놈펜을 떠나 반띠미 마을로 떠났다.

다음날 우리의 건축 봉사과 교육 봉사 등 주요 활동 장소인 반띠미 군으로 갔다. 현지 상황이 예상한 것과 차이가 있을 줄은 알았지만 생각과 다른 부분이 꽤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벽화 작업을 진행하려 했던 교회 뒤편의 건축물은 바닥 등 기반 작업이 더 필요로 했다. 그리고 장소 부족의 문제로 이전에 준비해온 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실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했다.**

시작 전, 넓게만 보였던 건축물의 바닥은 모두의 흙과 돌 바구니 하나하나가 쉬지 않고

모여 빠르게 채워졌다. 회의를 통해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교육 일정을 수정했다. 이 외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단원들의 협동심과 성실함, 박지이 선생님의 인술,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도움, 그리고 회의나 대화 등을 통한 단원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하나 대처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건축과 벽화,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방문과 코리안 데이 행사, 그리고 의료 봉사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2주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아이들 앞에서 양치질 교육 후 더 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워했던 기억, 고민 끝에 완성했던 벽화의 알파벳 D, 코리안 데이 공연 후 아이들의 엄청난 박수 소리, 오고 갈 때마다 나와서 손을 흔들어주던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

마지막으로 지난 2주간 항상 같이 지내고 도움을 주신 단원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이 모든 기억들이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 같다. **이 소중한 기억을 품고 간직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장갑을 끼고 나선 아이
너의 도움으로 나는 한번 더
찼한 감동을 받는다.





무거운 박스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란다.





나는 물류팀이다.



뭔 짐이 이렇게 많아?



함지박 웃음으로 찰칵



이렇게 하는 거란다.



사진팀

소중한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사진기와
하나가 된 추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진팀 활동소개

喜怒哀樂을 사각 프레임



안녕하세요! 이번 아자봉3기의喜怒哀樂을 사각 프레임에 담은 사진팀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진특기로 선발된 전송은, 이진수 2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사진팀은 모든 단원들이 흘린 땀방울을 가치를 알기에 국내에서의 준비기간부터 캄보디아 현지 활동까지 전체 기간 동안의 아자봉3기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히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단원들이 사진을 통해 지난 날 우리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 함께 했던 우리 아자봉3기의 추억과 더불어 캄보디아에서 추억을 단원들에게 사진으로 남겨 주고 싶었습니다.

'남는 건 사진 뿐!'이란 마음으로 쉬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후일에는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기에 다양한 단원들의 모습을 담으려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단원들은 사방사망한 모습으로 사진에 남아 있지만 이내 사진에서 사방사망한 단원들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출국 첫날부터 야간 비행과 장거

리 버스 이동으로 꼬질꼬질 해지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화장기 없어지는 민낯과 수염으로 뒤덮여가는 얼굴에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릿빛이 아닌 구리구리 하게 그을린 단원들의 모습들만이 사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남겨진 지난 날 단원들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 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사진에 고스란히 녹아 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쉽게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통해 우리들은 언제나 캄보디아에서의 추억과 노력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사진 속의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우릴 고무 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희망컨대, 사진으로 남은 우리의 지난 12박 13일의 모습들이 우리 아자봉3기 단원들에게 피로회복제와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며 우리 3기 단원들도 사진 속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항상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각 프레임에 담은 수줍은 ‘반띠미 마을’

이진수



이국에 대한 설렘, 기대감과 더불어 우리 봉사단원들이 흘릴 땀과 그 결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생생히 모두 사각의 프레임에 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실 출국 전부터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8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붓는 '스콜'현상이 한창일 시기이기에 사진촬영은 물론 우리 단원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캄보디아에 도착하니 우기라고 하기엔 날씨가 너무나도 쾌청했다.

실제로 12박13일 동안 비를 본적이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사진 촬영에 대한 핑계가 없어졌다. 진짜 죽기 살기로 잘 찍어야만 했다.) 외국에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진, 그 중에 배경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찍는 족족 사진에는 푸르름이 담겨 있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인 한국과 달리 산을 찾기 힘든 캄보디아에서는 탁 트인 푸른 하늘과 눈과 발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런 배경 탓인지 우리 봉사단원들의 인물사진도 실재만큼(?) 잘 나왔던 것 같다. (물론 몇몇은 사진발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보여 주기도 했다.) 배경만큼이나 기억에 남는 것은 봉사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한 현지 아이들이었다. 동그랗고 반짝거리는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은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런 아이들도 카메라만 가져 가면 수줍어하며 미소를 숨기려 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순수함은 쉽사리 숨겨지지 않았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사진에도 여실히 나타났다.

수줍어하듯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캄보디아의 그곳이 그리워 진다.

아자봉 3기, 우리 꼭 캄보디아 함께 가자!

전송은



6월 2일.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음 시간대 면접을 위해 학교로 가고 있는 현정이를 만났다. 작년 작은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현정이와 그때 두 번째 만남이었다. 서로 잘 알진 못했지만 **‘우리 꼭 캄보디아 함께 가자!’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 후 며칠 뒤 정말 함께 떠나게 됐다. 그리고 둘만이 아닌 19명의 단원, 한분의 리더와 함께 떠난다는 것은 나를 더욱 설레게 만들었다. 휴학생활동을 하며 서울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었던 내게 캄보디아는 휴식이기도 했고, 대학생들 마지막 방학을 해외봉사로 멋진 피날레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사진 특기자인 나로써 출국 전 아산병원에서 합숙하며 동료들이 준비한 프로그램과 공연들을 보며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멋진 이들을 카메라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공항에서 티켓을 받고 기내에 들고 가지 못하는 물건들은 점검하고 나니 떠난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일까?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웃음 한가득 머

릿속에 띄우고 설레는 여정을 시작했다. 거의 다음날이 되어서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한 우리는 말로만 들던 도마뱀과 마주하였고, 비포장도로와 가로등하나 없는 컴컴한 거리를 달렸다. 캄보디아 땅을 밟자마자 다음날이 밝았고, 봉사활동 시작 전 뿔슬랭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원래 여학교였던 이곳은 폴 포트 정권의 등장으로 고문장이 된 곳이다. 농업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민, 지식인, 언론인 뿐만 아니라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손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말뚝 안 되는 죽음들이 덩그러니 그곳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보니 캄보디아인들 중 안경 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카메라 손에 쥐고 기다립니다.
단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아이들의 순수한 순간을 담기위해...





찰나의 순간, 찰나의 기억
모두가 소중한 추억입니다.





캄보디아 친구-미스 캄보디아



동료들



이렇게 하는 거란다.



나도 여자랍니다.

의료봉사 & 어린이 가정방문

맘과 몸의 상처가
치유되길...
그 치유의 자리에 희망과
꿈이 자랄 수 있도록...





★ 과정 및 일정

8/17^{MON}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팀 진료보조



8/28^{WED}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팀 진료보조

8/29^{WED}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팀 진료보조



의료 봉사 소개



의료봉사를 시작하는 날 저희가 한 일은 **예진을 받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진료를 받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1층에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예진을 받으시고 예진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2층에 다시 올라가서 진료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8시쯤부터 계속해서 환자분들이 밀려들어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 환자분들을 상대해 드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서서 환자분들을 안내해드렸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아이는 소아과로, 부모는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

다. 대부분이 큰 증상은 없어 보였지만, 그 중 몇몇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증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배에 복수가 가득 찬 여자아이, 하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 귀 뒤쪽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커다란 혹이 난 아주머니와 아기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할머니를 부축해 드리고 진료소에서 약국까지 안내하는 것 밖에 없었지만, 의사선생님들께서 수술을 하시고 병이 나아서 돌아가는 아이, 돋보기 안경과 약을 처방 받고 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진정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의대생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의료와 관련된 봉사를 거의 하지 못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 봉사를 하면서 의대생으로서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 과정 및 일정



8/27^{MON}

어린이 가정방문
(위생교육 및 의료봉사 진행)

8/28^{TUE}

어린이 가정방문
(위생교육 및 의료봉사 진행)



8/29^{WED}

어린이 가정방문
(위생교육 및 의료봉사 진행)



어린이 가정 방문



어린이가정 방문은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아가서 소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활동과 달리 한번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한 명, 한 명과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정 방문은 오전에 노력봉사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었습니다. 단원 5명이 조를 이루어 통역을 도와주는 동료 사룟과 함께 하루 2~3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약간 더 긴더라도 조금 먼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규태 선교사님의 조언에 따라 좀 더 먼 곳에 위치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배워올 수 있어서 뿌듯했던 시간

우리는 방문을 위해 위생교육과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간단한 의료 지원 등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위생교육의 경우, 그 목적과 그 효과가 일회성이고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에도 아이들이 양치질이나 손씻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치아모형을 손으로 만져보고 칫솔로 양치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씻기 교육은 준비해 간 재료를 가지고 직접 주물럭 비누를 만들어 본 후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들이 지루해 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러한 요소를 통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다함께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간호학과 학생들의 소독이나 봉대 감아주기 등 의료 지원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투른 발음으로 '쭈리업수어'라고 인사하며 들어갈 때 우리를 신기하게만 쳐다보던 눈빛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준비해 간 것들을 더 열심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만나볼 수 있는 가정 수와 방문 시간이 조금 적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정을 찾아가서 더욱 가까이에서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이후에도 손을 씻거나 양치질 할 때 우리와 함께한 추억을 같이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문화탐방 & 여행

어느 아픈 역사와 생동감
넘치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캄보디아와 마주합니다.



똘슬렝 박물관, 그 역사의 현장에서...



“
똘슬렝 박물관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기구들이나 사형방식에
대한 설명이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

12박 13일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단 한번도 캄보디아인들 때문에 불쾌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관광을 하지 않고 봉사에 치중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2주 동안 만났던 캄보디아 사람들의 친절함, 순수함 그리고 맑은 미소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상처 깊은 역사가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킬링 필드입니다. 1975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캄보디아는 공산정권이 집권하면서 전체가 피바람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라는 무장단체가 프놈펜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킬링필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크메르루즈 정부는 화폐, 시장, 종교조직, 학교, 사유재산을 철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농업적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전 정부 관료나 지식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여지없이 살해당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똘슬렝 박물관은 원래는 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이 곳을 폴포트 정부는 감옥으로 개조하였고 이곳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은 수용자 중 17,000명은 죽음의 장소인 킬링필드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인들은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어린 아이들 다리

를 잡고 나무에 휘둘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똘슬렝 박물관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기구들이나 사형방식에 대한 설명이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당시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얼굴사진이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역사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2주간 봉사해야 될 나라라는 생각과 함께 희생자들의 수많은 얼굴에 둘러 쌓이게 되니 저희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하는 대상이 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하였더라도 대대로 전해져 오는 그들만의 정서를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2박 13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봉사를 통해 그들의 뿌리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그들의 깊은 역사를 알아야지 더욱 진정성 있는 봉사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처럼 우리나라도 근현대사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똘슬렝박물관의 아픔을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낼 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까업 해변^{Kep Beach}

에서의 달콤한, 재충전

“바쁜 일정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단원들 간의 친목을 위해, 토요일에 근처에 있는
해변에서 아침식사를 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 단원들과 동고동락 한지 어느덧 일주일. 오전엔 노력봉사, 오후엔 교육봉사로 심신이 지쳐가던 우리에게 다가온 첫째주 주말. 여태껏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왔던 터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캄보디아에서의 주말은 단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쁜 일정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단원들 간의 친목을 위해, 토요일에 근처에 있는 해변에서 아침식사를 하기로 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까업 해변(Kep Beach), 도착하자 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습한 기운이 잔뜩 우리를 반겼습니다. 해변 관광지답게 많은 외국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단원들은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해변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갔다. 다들 여기서의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몇 몇은 '항상 골라주는 음식

만 먹다가 이렇게 직접 고르려니까 잘못 고르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변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식당에서 아침을 맛있게 먹고, 모두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비가 올 것처럼 흐렸지만 단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모두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원들 간의 협동심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해변에서 축구와 피구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팀 플레이를 하다 보니 경기 중에 누가 다치지는 않을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참 흐뭇했습니다. 대부분이 얼굴, 몸 여기저기에 공을 맞아 옷지 못할 멍들도 많이 생겼지만, 모두가 함박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하루 동안의 확실한 재충전으로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있을 코리안데이 행사도 더욱 멋지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자봉 아자!



나눔의 대장정을 마치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넘실대는 시아누크빌 Sihanoukville 로~

캄푹 주에 처음으로 발을 딛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밝은 미소로 반겨주던 현지 인들과 익숙한 마을 풍경들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라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젠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서로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캄푹 주에서 약 10여 일에 걸친 모든 대장정을 마치고 출국하기 이틀 전, 시아누크빌(Sihanoukville)로 향했다. 시원섭섭한 마음을 안고 시아누크빌로 가는 동안, 이틀 후면 캄보디아를 떠난다는 사실이 점차 실감났습니다. 까엵 해변(Kep Beach)에서 시아누크빌까지 4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시아누크빌 해변은 하얗고 부드러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변과 가까운 식

당에서 해산물 요리가 준비했던 점심은 그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날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에메랄드 빛을 머금은 해변이 예뻐서 밥을 먹는 도중 자꾸만 해변으로 눈이 갔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단원들은 다같이 바나나 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한번도 바나나보트를 타 본적이 없어서 설렘만 긴장반으로 났습니다. 예상대로 재미있었지만 생각보다 짜디짤 바다물에 놀랐고 눈과 목이 고생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진술한 이야기를 나누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마음속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덧 시아누크빌의 밤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 까엵 해변에서 시아누크빌까지 4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시아누크빌 해변은
하얗고 부드러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



문화탐방

쭈م 리업 리어! 캄보디아, 안녕

“모두가 오늘이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은 잠시 잊은 채, 있는 그대로의 프놈펜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 수도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프놈펜은 우리가 머물던 곳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캄푹 주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 승용차, 오토바이들도 즐비했습니다.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던 첫날 불빛으로 반짝이던 프놈펜을 일정상 그냥 지나쳐서 그런지, 우리의 마지막 일정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프놈펜에서의 하루지만, 한편으론 캄보디아에서의 막바지의 일정이란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평소에 모두가 열망했던 프놈펜의 전통 시장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전통 시장에서 캄보디아인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모두가 오늘이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은 잠시 잊은 채, 있는 그대로의 프놈펜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쭈م리업 썬어(안녕하세요), ‘어 쿤(고마워요), 쭈م 리업 리어(안녕히 계세요)’는 캄보디아에서 단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첫 사전 교육 때, 기본 캄보디아 회화를 배우던 때가 생각난다. 익숙하지 않은 억양과 말투로 사소한 것 하나에도 웃음을 짓던 단원들의 얼굴이 흰한테 이제 모든 대장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니! 캄보디아에서의 12박 13일은 제게 많은 깨달음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19명의 단원들과 선생님은 캄보디아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자봉 3기의 활동은 끝났지만,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여운과 감동은 우리 아자봉 3기 단원들의 마음 속에 앞으로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자봉 3기 화이팅!





그 동안의 피로를 잊게 하는 휴식
그리고 아픈 역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점프



잔혹했던 그날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간혀



아직도 존재하는 쇠창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에필로그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여정은 우리들의 가슴 한 켠에
벽화로 수 놓아져 있습니다.





M



해외봉사단 3기



아산나눔재단 /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ambodia

아산청년해외봉사단 3기를 소개합니다

노력봉사팀

교육팀



정일권(노력봉사팀장)
건축봉사와의 어려움, 든든한 만형인 동시에 남자
단원들 상이의 분위기 메이커
우리의 든든한 만형, 자신의 전공 지식을 100% 발휘하여
건축과 벽화와 관련한 노력봉사를 완벽하게 수행해냄.



이소리(문화팀장)
알까, 문화팀장, 댕이가 매력
우리의 분위기 메이커로 항상 깔깔 웃는 소리가
없으면 무언가 아쉬운 그녀, 언니, 오빠, 동생을 할 것
없이 모두와 서슴없이 잘 지내고 적극적인 모습이 참
인상적임.



황성욱(전체팀장)
우리의 든든한 팀장이자 허당, 방구남, 매력남
일할 때는 전문가처럼 일하지만 계속 뭔가를 잃어버리는 허당.
팀을 위해 전체를 이끄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끝악근에
약점을 보여주는 귀여운 반전이 있는 남자.



박성진
두리안 러버, 능력자, 메디2
조용한 우리 여자 막내였지만 준비과정 그리고 현지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항상 일의 진행이 막힐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던 그녀.

이건희

농성훈

김유리

권민정

안지현

최현정

김대원

박성진

안태환

이소리

권예름



안지현
최고 인기남,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돋보이는 훈남
항상 3기 단원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안지현 단원.
팀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가장 좋았던 단원 중 한 명으로 초밥집
주인의 복장이었지만 항상 노력봉사의 시작과 끝에는 그가 있었다.



권예름
매혹적인 춤꾼, 메디1,
춤출 때 매혹적이다 못해 동생인 걸 잊게
만드는 춤꾼 권예름 단원.



김유리(전체부팀장)
부드러운 카리스마, 알맹구
우리 3기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존재였던 유리, 봉사활동 기간
중 단원들의 사이 사이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안태환
안 선생, 막내, 봉사활동하며 이성애
눈뜨다
우리 단원 중 가장 막내, 94년생 안태환 단원.



최현정(교육팀장)
청결은 기본이자 필수, 철저한 준비
식품영양학 전공으로 항상 청결을 중요시했던 최현정 단원.
전공에 맞게 위생교육 등을 중심으로 알차게 교육을 준비한
리더.



박지연(인솔자)
우리 지이형, 같은 서울깍쟁이 속은 시골 할머니
우리 3기의 엄마와 같은 존재였던 박지연 선생님.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냄.



김대원
언제나 FM, 무뚝뚝한 매력, 매력적인 보이스, '밀리터리 킴'
말 없고 무뚝뚝한 이미지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운 단원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무한매력.

문화팀

물류팀

사진팀



이소린
완벽한 리액션, 도도한 이미지와 다르게
털털한 반전매력

언제든지 확실한 리액션을 보여준 김소린 단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자세로 현지 최고 인기녀에
등극함.



오재민
오뎬, 우리의 춤 선생님, 집중력 짱

써니, 텔미, GEE, 롤리폴리, Like this까지 댄싱머신
오재민 단원.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공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최진미
여자단원의 춤선생님, 남자의 마음을
자극하는 매력녀.

우리들의 만능 엔터테이너 최진미 단원. 걸그룹 댄스를
통달하고, 부채춤까지 마스터한 그녀가 없었다면



이진수(사진팀장)
그 찍사, 까칠남, 꼼꼼함이 무기
같은 까칠하지만 속은 더 까칠한 사진작가.

이소린

최성민

최진미

김희화

김영광

김동영

오재민

조흥신

이진수

전송은

이규태

사룣



최성민
아자봉3기의 유재석, MC성민,
셀카쟁이

뛰어난 기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최성민
단원. 언제나 유머 담당이었기에 현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우리들의
MC.



김동영
나쁜 남자의 매력, 예술적
감각의 일록말, 나를
사진작가, 똥순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남자,
김동영 단원.



이규태 선생님
현지에서 소통의 창이 되어주신 IDIC의
이규태 선생님. 봉사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신 단원들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스승.



전송은
우월한 친화력, 보수의 아이콘,
그녀 찍사

그녀의 우월한 친화력으로 단숨에
단원들은 사로잡힌다. 털털한 모습 뒤에
엄청난 매력 마인드가 숨겨져 있다.



조흥신
땅콩, 어리버리, 다람쥐 볼, 호기심
많고 정이 많은 소년

내기를 못해서 남자 단원의 팔래를 똥땅
담당했던 땅콩 조흥신 단원. 현지 아이들과
함께 천진난만한 미소로 봉사에 임했던
순진남.



김영광(물류팀장)
큰 웃음소리를 미소 짓는 물류팀 거목.
이야기의 끝엔 항상 영광이의 큰 웃음소리가 함께했다.
물류팀장으로서 다른 팀들의 모든 준비물을 챙기고
행사가 끝나면 뒷정리까지 하는 우리의 살림꾼.



사룣
사룣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타국의
청년에게 한국의 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음에 놀란 단원들이
많음.

나눔 우체통

To.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3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 봉사단 3기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활동했던 이규태 선교사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또 너무나 즐거웠던 2주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또 3주가 훌쩍 지났네요. 모두 각자의 본업으로 돌아가 여기서 일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 또는 공부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 것처럼만 하면 분명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_ ^

청년 해외봉사단 3기가 여기서 무슨 일들을 했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네요. 아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흙을 파서 유치원 건물 바닥을 채우고 그 위에 자갈로 또 채우고 유치원과 교회 주변을 평평하게 만들고, 지역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온 다양한 과목으로 방과 후 수업을 했고, 유치원 내부에 A to Z 알파벳, 키 높이 기린, 아산나눔재단 나무 등의 벽화를 그

렸고, 어린이 가정방문도 했고 아산병원팀 의료진의 헬퍼로 지원하는 등 등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온 팀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_ ^ 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만 하는팀이 다 있나 싶었어요. 수다도 안 떨고 농땡이도 안 피우고 이 더운 날씨에 묵묵히 일만하는 팀이라니 덕분에 일을 진행하는 입장으로 편하기도 했지만 안타까울 정도랄까? 단기 봉사의 추억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것보다 함께한 사람들과의 교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야 캄보디아에서 한 일들을 두고 두고 회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중 후반에 참 에피소드가 많았던것 같아요.

from. 이규태

To. Jee Yi 누나, Daniel 형, Sung Min 형, Yuri 누나,
Young Kwang형, 홍신, 동영, 일권형, 소리, 소린, Taehwan,
JiHyuck형, Jinsu형, Jinmi, 재민, Hyun Jung 누나, 성욱형,
예름, Sung Jin, 송은누나

Hello everybody!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It has been 3 weeks now, and I still remember the time together at Bonteay Meas. I really want to go back to past if I can. I miss everyone so much.

The two weeks that I spent with everyone were so happy and joyful for me. Especially, I could get a lot of experiences from that mission such as how to work, how to communicate, how to



show love other people. That was a great time for me in my life that I got a lot of great things, good friends, good sisters and good brothers. I want to thank you all so much for being friendly, kindly and lovely to me, I want to go to Korea to see you all so much. Until next year, I will meet everyone again in Korea, so please take care yourself and pray for me. Thank you again for everything you did to me, I will remember it forever. I do love and miss you all the times. I miss (Jee Yi 누나, Daniel 형, Sung Min 형, Yuri 누나, Young Kwang형, 홍신, 동영, 일권 형, 소리, 소린, Taehwan, JiHyuck형, Jinsu형, Jinmi, 재민, Hyun Jung 누나, 성욱형, 예름, Sung Jin, 송은누나).

From. 사룻

To. 사랑하는 아자봉 3기 그대들에게



때론 버드나무의 버들잎처럼, 때론 싸리나무의 회초리처럼... 2012년 그 여름, 가멸차게 내리쬐던 태양만큼이나 뜨겁게 제 마음의 “청년 정신”을 불지핀 제 소중한 청년 해외봉사단 3기 단원들을 한 번 힘껏 불러봅니다. 정일권, 김유리, 이진수, 김영광, 황성욱, 안지혁, 최성민, 전송은, 권현정, 이소리, 김소린, 김대원, 김동영, 조홍신, 오재민, 안태환, 최진미, 권예름, 박성진 이 외의 현지 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노력봉사, 교육봉사, 문화교류활동, 의료봉사, 어린이 가정방문, 벽화 등등 그 어느 하나 긴장을 풀 수 없는 고된 활동 앞에서 감정의 변이와 충돌도 많았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울고 싶은 때에는 더 웃고, 웃고 싶을 때는 더욱 더 진중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귀한 자식이고 한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그들에게 잠시나마 부모이자 누나, 언니가 되어 보듬고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한 때는 냉정한 엄부의 가면을 써야 했고 다른 때는



어린 엄마의 가면을 쓰며 참으로 고마운 단원들에게 오히려 나눔의 마음과 손길을 더디 주었던 것 같아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년들을 대면할 때마다 가슴 깊숙이 더 많은 가르침과 나눔을 배워야겠다는 다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년들의 훌륭한 면모와 행동에 더욱 더 큰 가르침과 나눔을 배워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것들과 계획한 활동, 나눔을 아낌없이 베풀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대견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더욱 더 큰 찬사를 보내고 싶은 이유는 “청년”이란 이름 아래 그들이 나눈 손길과 행동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from. 아자봉3지기 박지이선생님

before and after



before_ 추운 나무



after_ 따뜻한 나무



before_ 경계의 눈빛



after_ 따뜻한 눈빛



before_ 망설임



after_ 다가가다



before_ 공사 중



after_ 정비 중



before_ 텅빈공간



after_ 풍성한 공간



before_ 상처



after_ 치유



‘베꽃’이란 잎을 돋우고, ‘나눔’이란 줄기가 샘솟고,
‘영감’의 뿌리를 내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아낌없이 주는 나눔”이란 이름의 벽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숭고한 나무는 나눔의 전설이 되어
여정을 함께한 청년들의 마음에도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늘 청년의 푸른 장도(壯途)를 성원하는
아산나눔재단의 마음처럼...

나눔을 그리워하며,

그리며..



아산나눔재단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소개합니다.

- **아산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http://www.asan-nanum.org/>
<http://www.facebook.com/TheAsanNanum>
<http://twitter.com/AsanNanum>
http://blog.naver.com/asan_nanum

- **청년해외인턴**

카페

<http://cafe.naver.com/asanintern>

- **아산프론티어**

페이스북
트위터

<http://www.facebook.com/asan.frontier.7>
<http://twitter.com/AsanFrontier>

- **청년해외봉사단**

카페

<http://cafe.naver.com/asanvolunteer>

- **정주영창업경진대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tartup.asan>

나눔을
그리다

